

## 구원 받은 룿이 망한 이유

오늘은 룿에 관한 이야기이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육신적으로는 너무 참담하게 되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이 우리가 보고자 하는 말씀이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우리는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사람에게는 안 주는데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언약이다. 그래서 이 언약으로 살게끔 만드신 것이다. 그래서 이 언약 하나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도록 언약을 만드셨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으로 구원받고 언약으로 구원 받는다. 그리고 언약으로 전쟁하고 언약으로 정복한다. 사단과 영적 문제는 언약으로만 정복할 수 있다. 우리는 사람을 살리기 원하는데 반드시 언약으로만 살릴 수 있다. 우리는 다 전도자 되기를 원하는데 그냥 일대일 전도자가 아니라 조직을 가진 전도자가 되기를 원한다. 언약으로만 가능하고 언약을 누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우리가 렘넌트 너무나 중요한데 그들에게 물려줄 것도 하나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다시 한번 이 언약을 회복해야 한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란다. 그래서 이 언약을 땅끝까지 전하는 237인생이 다 되기 바란다.

이 치유와 서밋은 237운동의 구체적인 방법이고, 길이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다르다. 구별되어 있고 영적인 삶을 살고 세상을 살리도록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러면 어떻게 그 큰 일을 하나? 답은 간단하다. 언약을 누리고 증거하면 된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실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야기 하고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소원이 내게 들어오는 시간 되기 바란다.

그래서 먼저 불 말씀은 룿이 왜 망했는가 하는 것이다. 룿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였고 그 가족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천사들이 와서 그 소돔 고모라의 모든 사람을 두고 룿과 그 가족만 데리고 나갔다. 그리고 베드로 후서 2:7절에 보면 룿에 대해 정확하게 기록했다.

**벧후 2:7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 당하는 의로운 룿을 건지셨으니**

룿은 의인이었다는 것이다. 의인이니 구원받은 것이다. 사람은 구원 받아야 의인이 된다. 그래서 그는 분명 구원 받은 의인이었지만 소돔 고모라 사건과 함께 모든 것을 잃었다. 몸만 빠져나왔는데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었다. 그리고 그는 딸을 통해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었다.

모압과 암몬 족속은 훗날 보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우상숭배를 심하게 하는 족속이었다. 성경에 많은 기록이 있는데 민 2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있다. 당시에 모압왕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했다. 그러면 많은 것을 주겠다고 했다. 그래서 발람이 당나귀를 타고 가는데 당나귀가 제대로 가지 않았다. 발람은 채찍을 때리고 하니 나중에 당나귀가 말을 했다. 여호와의 사자가 있어서 당나귀가 가지 못한 것이다. 그런데 발람은 눈에 보이지 않았다. 나중에 발람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에게서 메시지를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았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모압왕의 이야기이다.

솔로몬 왕도 많은 이방여자를 좋아했지만 모압여자를 좋아했다. 거기에 그 여자들이 섬기는 신당을 만들어 주기도 했다. 그 외에도 모압과 암몬 사이에 많은 이야기가 있다. 여하튼 룿은 자신과 함께 가족이 전부다 망했다. 그리고 후손은 완전히 복음에서 떠났다. 오히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족속이 되었다. 우리가 보는 것은 구원받은 룿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물론 성경에 보면 그 이유를 정확하게 기록하지는 않았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알수는 없다. 그런데 동시대를 사는 아브라함과 비교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할 길을 알 수 있다.

우선 우리가 정리할 것은 아브라함이나 룿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언약 안에서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두 사람의 차이가 없다. 단지 신앙생활과 육신의 삶 부분에 대해서만 차이가 있다. 이것을 정리해보면 길을 찾을 수 있다.

두 사람 사이에서 가장 첫 번째 차이는 단을 쌓는 삶이다. 아브라함은 곳곳에 단을 쌓은 기록이 있지만 룿은 그런 기록이 없다. 룿은 단을 믿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의인되고 구원 받았다. 그런데 그것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긴 기록이 없다는 것이다. 언약을 잡는 행위나 그것으로 예배, 기도하는 것이 기록상으로는 없다. 그런 영적인 행위를 룿은 한번도 안했다고 말할 수도 있고 말하기 어렵기도 하다. 확실한 것은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기록이 많지만 룿은 없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룿에게는 말씀을 받았다는 표현이 없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수시로 말씀 주시고 직접 나타나시기도 했다. 룿에게는 마지막에 나타난 이 천사에 대한 기록 외에는 다른 기록이 없다. 이것은 굉장한 차이이다. 말씀을 받는 것과 안 받는 것.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자기가 구원받은 언약을 누려야 하는데 누리는 삶이 보이지 않는다.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승리했다. 갈등 속에서도 먼저 몸부림 치는 기록이 아브라함에게는 많이 있다. 룿은 이런 신앙생활에 대한 기록이 없다. 물론 기록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없을 수도 있다. 여하튼 기록상으로는 그렇다. 문제는 뭐냐면 결과가 참담하다는 것이다. 아브라함과 비교하면 이것이 차이가 많다. 이유없는 결과는 없다. 결과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그러면 룿에게는 분명한 영적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기록이 없으니 아브라함과 비교해서 이해해보는 것이다.

첫째는 룿은 단을 쌓는 일을 지속했어야 한다. 아브라함을 떠난 이후로 그는 영적 지주가 필요했다. 그런데 누구를 의지할 만한 지주가 없었다. 아브라함을 떠났기 때문에. 그러면 자신이 스스로 그렇게 되었어야 했다.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이것을 해야 한다. 그런데 만일 룿이 아브라함과 함께 살았다면 아브라함이 말씀 받을 때 자신도 같이 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단을 쌓을 때 같이 있으면 같이 참여하는 자가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는 아브라함과 같이 살지 않았다. 그렇다면 스스로 무엇인가 했어야 한다. 근본적으로 룿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할 때 그 땅이 양을 치기에 좋았기 때문에 거기로 갔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선택이고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없다. 목축을 해야 하니까. 그러나 가나안 땅에는 목축할 자리가 없어서 거기를 선택한 것이 아니다.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 혼자만 살 수밖에 없는 좁은 땅이 아니었다. 룿은 그 때 가나안을 선택했어야 했다. 그것이 안되어지니까 떨어져 있으니 단에도 참여 못하고 말씀도 못 받은 것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통로는 아브라함이 유일했다.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것이 끊어진 것이다. 예배와 기도가 없고 언약 고백 없이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을 하겠는가. 여기서 룿이 근본적으로 부족했다는 것이다.

둘째로, 룿은 수시로 아브라함을 방문했어야 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야 했다. 그래서 은혜도 받고 적용도 했어야 했다. 그때 룿이 왔으면 아브라함은 룿에게 많은 것을 포

럼했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많은 증거가 있었다. 가능하면 롯은 온 가족과 함께 한번씩 아브라함 집에 갔어야 했다. 그때 은혜도 받고 단도 쌓고 했어야 했다. 그런데 롯에게는 이런 기록이 없다. 결국 결과가 다른 인생이 되었던 것이다. 혹시 방문을 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에 기록할 만한 영적인 것이 일어나는 방문은 아니었기에 기록이 없는 것일 것이다.

세 번째는 누림에 대한 기록이나 몸부림이 보이지 않는다. 언약으로 도전한다든지 씨름한 기록이 없다. 아브라함은 많이 있다. 단을 쌓는 기본적인 것부터 없는데 몸부림이 없다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다. 언약을 알면, 복음을 알면, 그 다음에 할 일은 누리는 것이다. 내면적으로, 영적으로 누리면 당연히 영적인 전쟁이 되는 것이다. 그 영적인 언약으로 도전도 하고 하는 것이다. 롯에게는 이런 기록이 없다는 것은 없었다고 봐야 하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롯은 굉장히 손해본 것이다. 구원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우리가 복음을 조금 알고 따라 가면 전도의 문이 열린다. 저의 경우에는 그 전에는 복음 전하려고 난리가 났는데 한명도 교회 따라오지 않았다. 그런데 복음 조금 알고 전달했더니 전도만 되는 것이 아니라 증거가 나오는 것이다.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치유가 되고 증거가 나타났다. 롯이 이런 부분에서 부족해서 인생이 그렇게 되지 않았나 하는 것이다.

만일 롯이 부족한 중에도 이런 누림의 삶을 살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분명히 롯에게 분명히 전도의 문이 열렸을 것이다. 롯에게 전도의 문이 열렸으면 어떻게 되었겠는가? 소돔 고모라는 재앙지대였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중에 살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 그 중에서 복음받고 저주에서 해방될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역사학자에 의하면 적어도 그곳 인구가 몇만명은 되었을 것이라고 한다. 그 사람 중에 여섯명만 전도했으면 소돔 고모라를 구한 시대적인 인물이 될수 있었을 것이다. 한가정만 전도해도 여섯명 되는데 안타깝게도 롯에게는 이것이 없었던 것이다. 은혜로 구원은 받았다. 그런데 복음을 몰랐다. 복음을 모르면 이 복음을 어떻게 해야 될는지 모른다. 아마 그런 것에는 관심도 없었을 수도 있다. 그러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아브라함에게 한번씩 가보지도 않은 것이다.

복음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생각이 없다. 복음 없는 사람을 다 만나보지 않았지만 이렇게 이야기 할수 있는 것은 내가 그랬고 우리 모두가 그랬었기 때문이다. 복음 모르면 영적인 눈이 전혀 없다. 내가 복음의 눈을 뜨고 보니까 내 주위에 정신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나는 그 때 참 잘 믿는 사람이었다. 교회에서 제법 두각을 나타내는 중심되는 인물이었다. 그래도 옆에 정신문제가 있는 것이 분명한데 그런 생각을 전혀 못했다. 귀신이 들렸으면 이것을 귀신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데 복음이 없으니 귀신이라는 말이 안나온 것이다. 약간 이상하다는 생각을 가진것과 이건 귀신이야라고 아는 것은 답을 줄 때 완전히 다르다. 복음을 전할때도 끝까지 갈 때와 중간에 멈출 때랑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복음 누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 믿는다는 사람 많이 만나다. 그런데 변질되었거나 섞여 있는, 틀린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구원 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우리가 할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롯과 같은 이 인생을 사는 신자가 얼마나 많이 있겠는가! 분명히 예수를 믿는데 삶은 불신자와 같은 것이다. 복음은 반드시 해방이고 누리는 것이다. 육신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완전 해방되는 것이 복음이다. 이 복음을 잘 모르니 복음이 그저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 신자들 많이 있다. 아직 우리가 완전 정복 안 되어 문제 중에

있는 분도 있다. 그러나 전쟁할 무기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천지차 이이다. 복음은 무기이다.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무기이다. 온 세상의 원자폭탄 다 터트려도 사단은 이길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누리면서, 응답받아가면서 그리스도 고백하면, 이것이 복음인 것이다. 우리가 복음을 알았으면 단을 쌓는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근본적으로 있어야 한다. 롯이 이것에 실패한 것이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삶과 응답은 누림으로 받는다. 그리고 그 고백과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영적인 삶을 살면서 언약으로 살면서 전쟁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인생의 문,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경제, 자녀, 건강 뿐 아니라 최고의 축복이 열리는 것이다. 그때 우리는 증인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답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데 롯에게는 이런 기록이 없고 아브라함에게는 많이 있다. 우리가 반드시 참고 해야 할 것이다. 잊지 말아야 한다.

두 번째 볼 것은 하나님은 자녀의 구원 중심으로 역사하신다.

**창 19:22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소알이라는 말은 작다는 뜻이다. 천사가 롯에게 한 말이다. 롯이 겁난다고 하니 거기로 가라고 했다. 그리고 거기로 가기 전에는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했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닐수 없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시간표 정해서 멸망시키기로 했는데, 거기에 롯 때문에 늦추는 것이다. 롯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시간표도 늦출수 있다는 그 뜻이다. 참 놀랍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구원의 가치이다. 창세전에 계획된 그 시간표를 늦추면서 기다려 주시는 것이다. 롯이 어떤 사람인가? 구원은 받았으나 사실은 보잘 것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었다. 지금으로 치면 주말마다 예배나 기도도 많이 하지 않았을수는 있지만 구원은 받았다. 그런 사람도 하나님은 놓치지 않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역사하신 것이다. 지난 주에 우리가 본 말씀에 끝까지 견디라고 했는데 우리 중심으로 구원하시기 때문에 견딜필요도 없다. 롯도 기다려달라고 했다. 그런데 견디긴 뭘 견디나. 기다려 달라고 하면 된다. 어떤 사람은 롯의 아내가 소금기둥이 되었다고 저주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착각이다.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지 육체가 아니다. 소금기둥이 된 것은 롯 아내의 육체지 영혼이 아니다. 우리의 구원은 죽는 모습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죽는 모습이 아무리 비참해도 믿었으면 구원 받는 것이다. 롯의 아내는 롯에 의해 주어진 언약으로 구원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천사들이 롯의 아내까지 데리고 온 것이다. 롯의 두 딸도 마찬가지로. 아버지를 통해 아이를 낳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윤리 문제이지 복음은 다르다. 그들은 복음 안에 있는 의인이었기 때문에 소돔 고모라 심판에서 나올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에 감사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신분 안에 들어 있는 권세 누리는 한주간이 되기 바란다. 그리고 언약을 잡고 다시 한번 고백하고 예배를 통해서 누려야 한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단을 쌓는 그 일을 절대 생략하면 안된다.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내 나름대로 단을 하나님 앞에 쌓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받고 깊이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기 바란다. 그래서 우리는 롯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